

아이가 집에서 영어로 말해야 할까?

국제학교 학생이 되면 영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됩니다. 이것은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국제학교에 보내는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. 하지만 그 결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; 모든 학생들이 같은 수준의 유창한 영어실력을 가지고, 학과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. 왜 그럴까요?

많은 비영어권 학부모님들께서 가정에서 자녀의 학업을 도와줄 수 없는 곤란함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. 언어 발달을 돕기 원하지만 개인교습을 시키거나 학원에 보내는 정도의 제한적인 방법들을 택하게 됩니다. 이러한 방법들도 전혀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없지만, 종종 등한시 여겨지는 것이 모국어 교육입니다.

이것은 무슨 뜻일까요? 예를 들어, 학교 운동장 또는 복도에서 또래 친구들과 의사소통시 사용하는 단어와 표현들은 수업 때 사용되는 것과 다릅니다. 이렇게 보다 사교적인 상황에 초점을 둔 커뮤니케이션을 *기본적 의사소통 능력* 또는 BICS(Basic Interpersonal Communicative Skills) 라고 합니다. 이의 주된 특성은 그 대화의 주제들이 대개 분명한 종류의 것, 다른 말로 하자면 대화의 내용이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다는 점 입니다. 하지만 교실에서 수업 중에 사용되는 언어는 때때로 명백하게 이해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; 보다 복잡하고 높은 이해 수준을 요하는 어휘와 표현들이 사용됩니다. 이런 종류의 커뮤니케이션을 *인지 및 학문적 언어능력* 또는 CALP(Cognitive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)라고 합니다.

인지 및 학문적 언어능력(CALP)은 논리적 사고를 요하는 해답을 찾아내는 데 사용되는 수단입니다. 이는 결국 논리와 수사법, 즉 인식능력을 근거로 합니다. 적절히 숙련된 학생들은 교실 내에서의 수업내용에 관한 비교, 분류, 종합, 추론, 평가가 가능하게

되며 이는 편안한 놀이공간에서의 언어능력과 다릅니다. 국제학교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언어적 문제들은 이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(BICS)과 인지 및 학문적 언어능력(CALP)의 구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학생들 중 이 BICS 의 영어는 유창하나 수업에 필요한 CALP 를 어려워 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. 그런 학생들이나 부모들 모두 이렇게 원어민에 가까운 유창한 회화를 구사할 수 있으면서 기대 만큼의 학과 성적은 나오지 않는지 납득하지 못합니다. 그래서 많은 시간을 들여 수많은 어휘를 익히며 영어를 완전히 익히려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 결과는 여전히 실망스럽습니다. 왜 그럴까요?

4 학년 이상의 국제학교 학생들은 자주, BICS 영어와 그 전략을 CALP 가 필요한 수업에서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려 합니다. 그 이유는 이 학생들이 학문적인 영어가 필요로 하는 더 어렵고 복잡한 수준의 언어에 익숙하지 않고, 유창하지 않기 때문이며 역설적으로, 이 학생들이 그들 모국어로 된 학문적 언어의 복잡함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학문적 영어 역시 어려운 것입니다. 국제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들은 영어 습득에 지나치게 중점을 둔 나머지 보다 높은 수준의 모국어 발달을 등한시 하곤 합니다.

언어학자들은 모국어의 학문적 이해(CALP)를 위한 인식의 기반과 다른 기타 언어의 인식 기반이 하나이며 같은 원리로 적용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. (Thomas & Collier, 1998). 예를 들어, 한국어로 명료한 논쟁이 가능하다면, 영어나 중국어로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. 모국어의 인식능력이 부족한 것이 학생들의 영어로 된 학과의 실력 향상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?

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: 아이들이 집에서 예술, 정치, 역사 등에 대해 *모국어로* 이야기하며 이러한 인식능력을 갖추어 가도록 합니다. 모국어로 된 유명한 문학작품 중

일부를 읽도록 하고 그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도 있고, 현재 이슈가 되는 시사문제를 이야기하고 반대되는 의견들을 말해 봅니다. 신문의 헤드라인을 읽고 기사 내용이 어떤 것일지, 그 여파는 어떤 것일지 유추해 보도록 할 수도 있겠습니다. 또한 학교 과제를 위한 컴퓨터 사용 등과 같은 논제를 주고 그 효용성과 비효용성을 생각해 보고 이야기하도록 합니다. 이외에도 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 *저녁 식사시간*을 활용해서 정기적으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. 다른 어린 자녀가 있다면 함께 잠자리에 들기전 동화를 읽고 다른 결말을 생각해 보게 한 후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여 듣는 사람을 설득하게 합니다. 요지는 자녀가 비록 학교에서 다른 언어로 공부한다고 할 지라도 학부모님들이 그 학업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.

이렇게 이미 증명된 과학적 결과가 있습니다. 이제부터라도 일요일 저녁 식사시간에 논리적인 사고를 통한 대화시간을 갖으시고 자녀가 점점 발전해 가는 것을 지켜보는 즐거움을 누리 보시는 건 어떨까요. 자녀들이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좋아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보다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자 하신다면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담임교사들은 학부모님과의 대화를 언제나 환영합니다.

참조

Cummins, J. (1981). *The role of primary language development in promoting educational success for language minority students*. Sacramento, CA: California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, Office of Bilingual Education.

Thomas, W.P., & Collier, V.P. (1998). Two languages are better than one. *Educational Leadership*, 12/97-1/98, 23-26

Adapted from <http://www.everythingsl.net/in-services>